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6월 16일(주일) 제1250호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

6월 19일 '2019 아웃리치 발대식' 서빙고 분당 아웃리치 팀장, 공동체 및 사역팀 리더십 필참

2000선교본부가 '성령의 바람 온 세계 위에'를 주제로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9 아웃리치 발대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해외 189개 팀 3411명, 국내 170개 팀 5285명(6월 14일 기준)이 국내외 아웃리치를 떠날 예정이다.

2019 아웃리치 발대식은 선교사들의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아웃리치 지침 및 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외 아웃리치 팀장, 공동체 및 사역팀 리더십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웃리치 발대식은 국내외 아웃리치팀

이 한 자리에 모여 아웃리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열방과 선교와 아웃리치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이다. 아웃리치 발대식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아웃리치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웃리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기 때문이다. 이번 아웃리치 발대식에서는 지역별 치안, 여행보험, 숙소, 이동수단, 기후, 연락망, 예방접종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배우고,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성도들이 안전하

고 건강한 아웃리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2000swim.org)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관리시스템에 아웃리치 계획서를 입력하지 않은 공동체나 사역팀은 빠른 시일 내에 입력해야 한다.

한편 온누리신문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후기 및 사진 공모를 시작한다. 국내외 아웃리치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 아웃리치 간증, 간증을 쓴 성도의 얼굴 사진을 보내주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원고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크기 10포인트)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2000선교 본부: 02-3215-3679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6월 30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주차증 부착 차량만 교회주차장 사용

6월 30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주차장은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다자녀 성도 등

에게 발급되는 주차증을 부착한 차량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교회 주변 아파트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 오는 성도들을 위하여 서빙고 온누리교

회에서 이촌역,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캠페인은 온누리교회 환경 캠페인의 일환이다. 온누리교회 환경 캠페인은 주일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이 있다.

온누리공동체 상반기 종강예배

공동체별로 7월 5일까지

2019 상반기 종강예배를 드리고 있다. 지난 6월 12일(수) 서초A공동체를 시작으로 7월 5일 서대문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표 참조).

올해 상반기 온누리공동체는 1월 선교헌금 작정행사, 2월 목회사관학교, 3월 순장영성수련회, 4월 회복축제, 고난주간 심야예배, 5월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부모초청 맞춤형도전회 '행복드림콘서트', 6월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진 등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다.

서빙고			
날 짜	공동체	장소	시간
6월 16일 (주일)	강촌	EM전시관	13:00
6월 21일 (금)	한강	비전홀	18:00
6월 22일 (토)	강서	롯데시네마 가양관	16:30
6월 23일 (주일)	성북	EM전시관	13:00
6월 25일 (화)	동작	두란노홀	18:00
6월 25일 (화)	S브릿지	한동홀	18:00
6월 25일 (화)	이수	비전홀	18:00
6월 25일 (화)	웅산	시온홀	18:00
6월 27일 (목)	OCC	두란노홀	18:00
6월 27일 (목)	영등포구로	한동홀	18:00
6월 27일 (목)	노원	상현교회	19:00
6월 28일 (금)	김포	두란노홀	18:00
6월 28일 (금)	마포	한동홀	18:00
6월 28일 (금)	관악금천	비전홀	18:00
6월 28일 (금)	서빙고	시온홀	18:00
6월 28일 (금)	천양	콘서트홀	18:00
6월 29일 (토)	광명	하안장로교회	16:00
6월 30일 (주일)	특초	순정홀	17:00
6월 30일 (주일)	고양은평	예수인교회	17:00
6월 30일 (주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18:00
6월 30일 (주일)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17:00
7월 01일 (월)	중종로	두란노홀	18:00
7월 02일 (화)	가정사역	두란노홀	18:00
7월 02일 (화)	성동광진	한동홀	18:00
7월 04일 (목)	신용산	두란노홀	18:00
7월 04일 (목)	양천	비전홀	18:00
7월 05일 (금)	동대문중앙	두란노홀	18:00
7월 05일 (금)	이촌	한동홀	18:00
7월 05일 (금)	서대문	비전홀	18:00

여의도 - 순별종강

양재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6월 12일 (수)	서초A	화평홀	19:00
6월 16일 (주일)	하모니	두란노홀	17:00
6월 18일 (화)	분당B	드림홀	19:00
6월 18일 (화)	강남B	온유홀	19:00
6월 19일 (수)	분당A	드림홀	19:00
6월 19일 (수)	서초D	온유홀	19:00
6월 20일 (목)	서초C	드림홀	19:00
6월 20일 (목)	강남A	화평홀	19:00
6월 21일 (금)	강남D	드림홀	19:00
6월 21일 (금)	송파B	온유홀	19:00
6월 21일 (금)	도곡	화평홀	19:00
6월 23일 (주일)	푸른누리	화평홀	16:00
6월 26일 (수)	양재	화평홀	19:00
6월 27일 (목)	송파A	온유홀	19:00
6월 27일 (목)	경기A	안산M센터	19:00
6월 28일 (금)	서초B	화평홀	19:00
6월 29일 (토)	강남C	목상의집	15:00
7월 05일 (금)	POINT5	도곡 온유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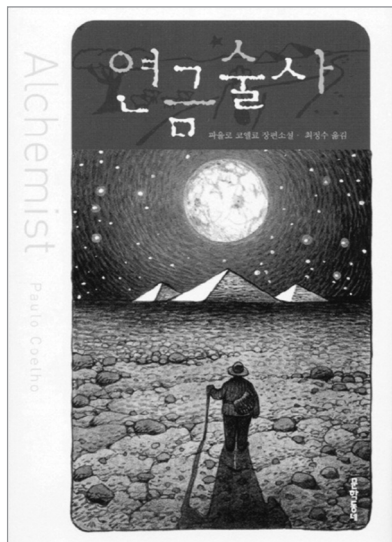
캠퍼스			
6월 21일 (금)	부천 사랑공동체	비전홀	19:30
6월 22일 (토)	부천 믿음공동체	비전홀	16:30
6월 23일 (일)	부천 화락공동체	비전홀	16:00
6월 28일 (금)	부천 화평공동체	비전홀	19:30
6월 28일 (금)	부천 소망공동체	사이닝홀	19:30
6월 20일 (목)	수원 동누리공동체	비전홀	20:00
6월 20일 (목)	수원 북누리공동체	본당	20:00
6월 21일 (금)	수원 서누리공동체	비전홀	20:00
6월 21일 (금)	수원 남누리공동체	경천홀	20:00
6월 21일 (금)	대전 동누리공동체	본당	19:30
6월 21일 (금)	대전 서누리공동체	비전홀	19:30
6월 21일 (금)	대전 남누리공동체	누리홀	19:30
6월 21일 (금)	대전 북누리공동체	세종시 한우장군	19:30
6월 28일 (금)	남양주 공동체 연합	수동 충신교회 수양관	19:30
6월 23일 (주일)	평택 공동체 연합	본당	16:00
6월 28일 (금)	인천 공동체 연합	제너섬 8층	19:30
6월 27일 (목)	강동 말씀공동체	12층 본당	20:00
6월 28일 (금)	강동 믿음공동체	12층 본당	20:00
6월 21일 (금)	양지 동누리공동체	킬보른홀	20:00
6월 21일 (금)	양지 서누리공동체	박모세홀	20:00





책 읽어주는 목사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저 | 문학동네 | 9,500원

이 책 〈연금술사〉를 쓴 ‘파울로 코엘료’는 남미 브라질 출신의 작가이다. 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본질적 측면을 다루는 소설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에서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 첫째, 타리와 지역의 파곤 장수와 같은 사람이다. 본래 자신의 꿈은 양치기가 되는 것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실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둘째, 크리스털 그릇가게 사장과 같은 사람이다. 메카로 순례여행을 가는 것이 꿈이다. 막상 그 꿈이 이뤄지면 더 이상 이를 꿈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막연한 꿈만 갖고 현재의 고단한 삶을 견디는 사람이다.

셋째, 연금술 연구에만 몰두해 있는 영국인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론을 세상에서 구현해낼 수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넷째, 주인공 ‘산티아고’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나서는 사람이다.

양치기인 스페인 청년 산티아고는 이집트 피라미드 꿈을 연속해서 쫓다. 산티아고는 그 꿈이 예언이라고 믿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긴 여행길에 오른다. 그 여정에서 산티아고는 그 피라미드 밑에 보물이 있을 거라고 하는 집시여인과 늙은 왕

을 만난다. 도둑을 만나 빈털터리가 되기도 한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에서 죽음의 문 앞까지 이르기도 한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도 끌리지만 “꿈을 계속 쫓아가라”는 연금술사의 충고를 따라 마침내 자신의 보물을 찾게 된다. 그 보물이 있는 장소는 멀지 않은 곳이었다. 바로 자신이 머물렀던 장소였다.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마치 산티아고와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집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거닐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었고, 상급(보물)이 되었던 것을 경험했다. 약속의 자녀 이삭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는 꿈이 부여된다. 그러나 “그 꿈을 누가 주시는가?”, “그 꿈을 통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은 진정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다. 모든 인생은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여정이어야 한다. 〈연금술사〉는 그러한 관점을 열어줄 수 있는 책이다.

“O Sabor da vida depende quem se tempera.”

남미에서 자주 사용하는 속담 중 하나이다. “인생의 맛은 누가 양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다. 인생을 요리로 비유한 것이다. 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고 하자. 어떠한 양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이 확연하게 달라진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찬란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 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롬 1:19-20).

서경남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Q 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존재하나요?

답: “네. 천국과 지옥은 성경의 기록대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믿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교리에서 천국과 지옥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을 보면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흠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 거룩함으로 완전케 된다.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으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히 12:23, 고후 5:1, 6, 8, 빌 1:23, 행 3:21, 엡 4:10).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칠후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낸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눅 16:23-24, 행 1:25, 벰전 3:19).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은 천국과 지옥 외에는 아무 곳도 없다’고 말한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의 기록대로 분명 존재한다.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서 처음 나타난 천국의 모형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동산’이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셨던 곳이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와 사람들보다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유로 설명하신 본문은 누가복음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안이 있는 곳이고,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이다.

천국의 특징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곳의 크기는 광대하며 측량할 수 없다. 천국은 높은 곳이며 거룩한 곳이다. 천국은 죽음, 눈물, 슬픔, 울음, 고통이 없는 곳이다.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며, 고통과 벌이 있는 곳이다(눅 16:23). 지옥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은 ‘아래’에 있다고 말

한다(사 14: 9). 지옥에 대한 기록은 신약에만 162개 구절이 있는데 그중에서 70번 이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옥은 벌을 받는 곳이며, 고통이 있고, 불이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다. 천국의 모습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 된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다. 그 생명수 강줄기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모든 나라들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그곳은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종들이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추시기에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

모든 인생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열려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이 계신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 14:1-4).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며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우리들이 갈 영원한 집이 있기에 그곳을 바라보라고 격려한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대충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천국시민권자들이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분향이 천국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성도들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유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밝히 드러나게 될 줄 믿는다.

최성석 목사
(이수공동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겸손한 영혼의 기도

시편 131:1~3

“우리 평생 믿음의 숙제는 교만을 꺾고 꺾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을 겸손한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맡겨진 소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겸손한 영혼이 기도로 드러진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31편은 가장 짧은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고백하기에는 가장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입니다. 작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겸손한 영혼의 내면을 보여주는 풍성한 신앙의 시입니다.

시편 131편은 겸손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표현으로 ‘겸손은 ~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2절에서는 ‘겸손은 ~과 같다’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일들과 나에게 베푼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1절).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일들, 베푼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겸손을 표현할 때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요?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 ‘이것이 겸손’이라고 깨닫고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겸손이 아닌 교만한 일이나 교만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닫고, 때로는 교만이 주는 아픈 상처들을 체험하면서 겸손이 무엇인지 역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은 ~이다’라는 긍정적 표현보다는 ‘사랑은 ~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닌 것을 체험하면서 역으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겸손의 실체를 체험하는 것보다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겸손이 아닌 것을 통해서 얼마나 겸손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

첫째, 겸손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은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열 길 물속보다 깊다고 했는데,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겉으로는 잘 포장된 인격, 교양 있는 인격처럼 보이지만, 물을

휘저으면 바닥에 있는 흙으로 인해 물이 흐려지듯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교만이 삶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만합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교훈과 훈계와 연단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라는 고백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성들이 면도를 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저도 면도를 하면서 ‘이렇게 매일 교만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나면 또 자라는 것이 교만 아닙니까? 매일 꺾지 않으면 어느샌가 자라는 것이 교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한 것 같지만 속에서는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겸손은 눈이 높지 않은 것

둘째, 겸손은 눈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은 마음에 숨어있지만 표현은 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라고 한다면, 얼굴에서 교만이 가장 먼저 표현되는 기관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표현을 보면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와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비참함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비참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가장 많이 동반되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행복, 평강과 형통함, 전쟁과 황폐함 등이 함께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언제나 같이 나오는 단어가 높아진 눈입니다. 시편 101편 5절을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눈이 높은 것이 교만의 표현입니다. 교만한 눈은 언제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시기하고,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우리 눈이 겸손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너무 크고 감당 못할 일에 힘쓰지 않는 것

셋째, 겸손은 너무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벅

찬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영혼은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이 아닌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교만했던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더디게 오자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영혼은 자신의 부르심이나 은사가 아닌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언제나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경영분야에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였던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이라는 책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기업을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신앙에 적용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합니다. ‘Good’에는 ‘좋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한’이라고 번역하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선해지려고 하지 않고 위대해지려고 할 때 교만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대하십니까? 시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단지 능력이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까닭은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선하신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위대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Good to Great’이 아니라 ‘Great to Good’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대한 마음을 뛰어넘어 선한 마음을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과대한 성취욕에 빠지는 것이 교만의 증상입니다. “나에게는 왜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작 그는 위대한 왕이었고, 큰일을 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때 “나는 할 수 있다”는 야망을 갖고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심부름으로 갔을 뿐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싸우

러 나가려 할 때 그의 형 엘리압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입니다. 다윗은 교만해서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것은 군사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가 위대한 왕이 되려고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훈련했고, 단 한 번에 맹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사울을 무너뜨리려고 그 순간 감당하지 못한 일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을 지키려고 애썼을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큰일을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은 결코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도망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10년 동안 백성들이 처한 궁극함, 억울함, 동굴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광야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 곳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또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그는 도망 다녔고,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졌을 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겸손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 눈이 높아져서,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눈으로 스스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 영혼을 귀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좌절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원인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실패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13면에 계속>

크리스천의 삶과 신앙시리즈

1. 크리스천의 품위 2. 노동의 품위(땀의 가치) 3. 노인의 품격

노인의 품격은 나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다음세대에 풍부한 경험과 지혜 전수하는 일이 품격이자 사명
웰빙(Well-being), 웰에이징(Well-aging), 웰다잉(Well-dying)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다른 집 노인이라도 모셔오라”(덴마크 속담), “한 동네 노인이 죽는 것은 그 동네 도서관 하나가 불 탄 것과 같다”(영국 속담), “노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한국 속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와 그 유익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노인의 연륜과 경험은 곧 사회적 자산이자 다음세대를 위한 지침서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노인들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툭쭈(툭나+딱딱+벌레의 합성어), 지공선사(지하철 공짜로 타는 만65세 이상 노인들) 등의 말로 노인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 결과지만 표면적 이유는 일부 노인들의 무질서하고 품위 없는 행동 때문이다. 나이 많은 것이 벼슬인 것 마냥 아랫사람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공중도덕조차 지키지 않는 행동이 젊은이들에게 거부감이 생기게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이 품위를 지키고, 공경 받는 존재로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프랑스 작가 무사 아사리드는 그의 책 〈사막 별 여행자〉에서 “노인은 성스러운 존재다. 후세에 전할 지식을 해야 할 수 없이 지냈다”고 했다. 바로 그 성스러운 정도로 품위 있고, 지혜와 지식의 보고(寶庫)인 노인들이 어쩌다 뒷방 늙은이로 전락했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 노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노인들을 폄하하고, 무시하게 만들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때는 더 심했어”, “어디서 감히!” 등의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면 제 아무리 잘난 노인이라도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계속 불통을 이어가면 서로 귀를 닫고, 갈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음의 사례들은 왜 요즘 젊은 세대가 노인들을 혐오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P자매(32세, 청년부)는 노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다.

“지하철을 탔는데 노약자석이 비어 있기에 별 생각 없이 앉았어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젊은 X이 왜 노약자석에 앉았어? 정신 빠진 X같은니”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어르신 오시는 것을 보고 바로 일어났는데도 계속 쌍욕을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노약자석에 절대 앉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들만 봐도 겁이 나고 싫어요”

K형제(30세)도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데 꼭 새치기 하는 노인들이 있어요. 걸로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욕하죠. 왜 저럴까? 질서 좀 지키지, 팔불견이다 뭐 이런 거요.”

J성도(41세, S브릿지공동체) 또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흔히 하시는 말씀들

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이런 말들이요. 그래서 어쩌란 건지. 지금도 ‘우리 댄 말이야’라고 하세요. 노인들은 결코 안 변하더라고요”

이처럼 요즘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 못해 차갑다. 일부 노인들의 품위 없는 행동이 노인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통계에도 잘 나타난다. 국가인권위 노인인권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9~39세) 80.9%가 ‘우리 사회가 노인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노인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쩌다 공경의 대상이었던 노인들이 끈대가 됐을까?

노인이라고 무조건 존중하던 경로(敬老)시대는 분명히 지나갔다. 살아 온 세대, 정치, 경제, 사회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들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들의 갈등을 불러왔고, 그 파급효과로 노인에 대한 혐오와 경시가 생겨났다. 노인들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노인이 존경받고 우대받았다. 농경사회, 대가족 제도, 유교 사상 등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노인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대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정보를 노인들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자, 지혜의 상징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마을 어른들이 풀어놓는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리나온 조언들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명언이자,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였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노인을 존중하고, 공

경하고 따랐다. 그 시대에는 지혜와 덕망 있는 노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품위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요즘은 구태여 나이 든 사람에게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어졌다. 농경사회가 아닐뿐더러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매체를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너무나 손쉽게 그것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라는 의미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노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모세와 시므온이 보여준 품위 있는 노년의 삶

성경 인물 중에는 늙어서도 기품 있고 존경받는 노인들이 참 많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이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가장 존귀한 지도자로 평가할 정도로 그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비록 늙은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120살까지 활약했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전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을 정도로 모세는 기품 있는 노인이었다(신 34:7).

성경 인물 중에 품위 있는 노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또 있다.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언자 ‘시므온’이다. 그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다(눅 2:25).

시므온은 매일같이 성전으로 출근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서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을 추구했다. 무엇보다 시므온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지상의 삶이 아니라 천상의 삶을 추구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영적 노인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셨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두 눈으로 목격하는 감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팔에 안아보는 영광을 주셨다(눅 2:29-32).

앙드레 지드(소설가)는 “늙기는 쉬워도 아름답게 늙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름답고 품위 있는 노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까? 잘 늙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노인들이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음세대에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전수하는 일이 곧 노인의 품격이자 사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웰빙(Well-being), 웰에이징(Well-aging), 웰다잉(Well-dying)이다. 잘 살고(부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 잘 늙어가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노인의 품위를 지키는 방법이다. 모세와 시므온처럼 지혜롭고 영적인 노인, 아름답게 노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노인이라면 잘 살고, 잘 늙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노인이 아닐까? 그런 노인들을 보고 이 시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분처럼 늙고 싶다’고 생각하고, 존경하고, 추억할 것이다. 제 자랑과 잔소리보다는 인자한 미소를 건넬 줄 아는 노인, 호통보다는 “잘했다”, “힘들지?”, “넌 위해 기도할게”라며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 노인, 넓은 마음으로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노인, 인색하지 않고 베풀 줄 아는 노인이라면로 진정한 품위 있는 노인이다.

젊은 세대들도 노력해야 한다. 일부 노인들의 무질서함을 보고 마치 모든 노인들이 그렇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 젊은 세대들은 노년기가 곧 내게도 다가올 미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들을 폄하하고, 경시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품위 없는 모습이 없다. 자기가 한만큼 꼭 돌아오게 되어 있다.

기고

제2의 인생의 의미

영원으로 나아가는 최고이자 최상의 은총



주선에 권사
(장신대 명예교수)

성경에 나타난 노인은 그 사회에서 존대를 받았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 16:31).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

름다움은 백발이니라”(잠 20:29). 성경은 노인의 백발에 대해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했고, 선한 생활의 보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인은 지혜자요, 경험의 소유자로서 성문에 앉아 상담하는 등 상류사회에서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다. 이는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 오랜 미풍으로 이어오던 경로사상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들은 그 권위와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고, 빠른 변화와 새로운 정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젊은이들의 발랄함이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는 물론이고 가정에서까지 밀려나고 있다. 정책적으로 우대권을 주고 좌석을 만들어 주지만, 현실에서 노인들은 일반인들로부터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TV에서 노인을 바보스럽고 무식한 고집쟁이로 묘사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시대 노인들이 사회 혹은 가정에서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매우 우려된다.

사회가 여러 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노인들 스스로도 부정적인 자아상(自我像)을 갖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들이 자포자기(自暴自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로 하여금 노인들을 더욱 멸시하게 만들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우리 사회는 매우 어둡고 불행한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존대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 노인들은 스스로 각자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노년을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멋진 마지막 삶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 그 결실이 보일 때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온 사회의 축복이 될 것이다.

제2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

제2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연구에서는 인생을 하나의 자연현상과 같은 관점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노년기의 존귀한 가치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노년을 단지 육체적 노쇠 현상으로 본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다. 노인 스스로도 제2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노인들이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아니라 해도, 모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로 의식하거나 사회에서 멸시받는 그대로가 스스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점차 우둔하

나짐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재조명해보는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제2의 인생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폴 튜니어는 젊은이들이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젊게 사십니까?”라는 물음에 “어떤 전환점이 올 때마다 나는 그것을 내 생애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겼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생애에서 고통이나 혼란이 올 때마다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가는 용기와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면 인생의 멋진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의 인생은 여생(餘生, 남은 생)이 아니라 생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요 인생

은 세계로 진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2의 인생, 송고한 개화(開花)기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 내성적이 되며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소외감과 고독감에 시달린다. 둘째, 조심성이 증가하고 정확성에 신경을 쓴다. 셋째, 의존성 증가하고, 가족관계에서 감정의 유대관계를 중요시한다. 넷째, 생각과 행동, 감정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다섯째, 경직성이 증가하고 융통성이 약해진다. 여섯째,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더해진다. 일곱째, 노욕(老慾)이 강해진다.

제2의 인생에 있어서 개방성이 중요하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늙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시기에 서도 볼 수 없었던 전인격적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력을 다해 사물과 인생을 보고, 보답 없는 사랑을 발휘하고, 사심 없이 조용히 다가가 삶의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성숙과 은총의 시기가 바로 제2의 인생이다.

잘 적응하는 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제2의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나누며 살고자 노력한다. 파리대학의 쟁도레 박사는 “육체적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늙음이란 권위의 실추이지만, 정신을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늙음은 송고한 개화(開花)”라고 했다. 부모의 마음가짐으로 남을 돌보고 사랑하고, 모든 이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면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도 자연히 바뀌게 될 것이다.

제2의 인생의 의미는 섬기는 삶에 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바로 사람들을 섬기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이다(마 20:28).

제2의 인생의 의미는 영원한 세계로의 눈을 뜨는 것에 있다. 우리는 육체의 노화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더욱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채워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늙음을 통해 영원을 지향하게 되고, 육체의 노화로 이 세상 모든 것에 소망이 없어지면서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가장 값진 초자연적 생명 세계를 찾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가는 데 그 최상의 의미가 있다. 예측 불가능한 죽음에 대면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헌신을 준비하면서 영원으로 나아가는 최고이자 최상의 은총이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새찬송 455장).



“ 부모의 마음가짐으로 남을 돌보고 사랑하고,
모든 이들의 아버지로 살아간다면
노인에 대한 편견이 자연히 바뀔 것이다. ”

고, 불편하며, 가난해져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노인들이 스스로를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자인해 버리게 만든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늙으면 편안해야 하고, 그런 자락이 이미 나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왜 이래야 하느냐고 크게 좌절하고 불평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습적 자아상과 부정적으로 보는 관습을 벗고, 보다 깊은 의미의 인생관을 재정립해야 할 과제가 노인 각자에게 놓여 있다. 즉, 제2의 인생으로 새로이 출발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자기를 객관화하며,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

의 절정이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근본적으로 성경에 입각한 인생관이나 가치관으로 변화, 발전함으로 성장의 최고 단계에 이르게 된다(마 5:48). 노년은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꿈을 접고, 나를 잊고 살던 자리에서 벗어나 ‘나’의 삶을 주체적이고 이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시기이다.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의 맛과 멋을 깨닫고 느끼면서 새로운 성취감을 즐기는 시기가 바로 제2의 인생, 곧 노년의 때이다. 그래서 튜니어는 노년기를 ‘인생의 개화기(開花期)’라고 불렀다. 제2의 인생은 더 좁은 곳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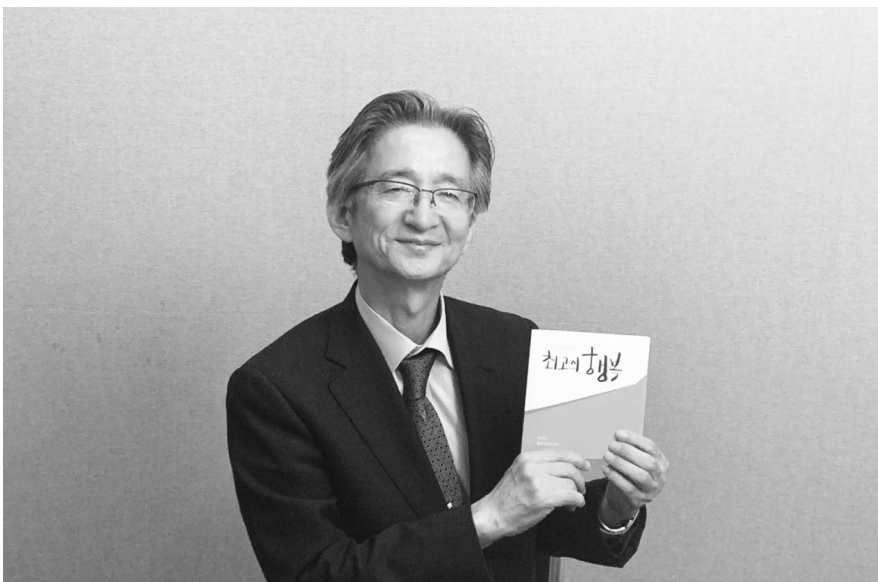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전도할 수 있다!

21개 언어로 번역된 온누리교회 공식 전도지 <최고의 행복>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언어를 몰라도, 누구나, 5분이면, 전도할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전도지가 진짜 있다. 온누리교회 공식 전도지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은 21개 언어로 출간되고 있어서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전도할 수 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글에 딱 맞는 삽화도 참 멋지다. 그런데 이 귀한 전도지가 온누리교회 공식 전도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소개하면서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 탄생부터 현재까지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장경문 장로(양천공동체)에게 자문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장경문 장로가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달 두란노서원에서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졌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이 21개 언어로 번역을 마쳤다는 소식이었다. 이제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태국어, 아랍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스리랑카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우르드어(남아시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 하나), 헝가리어, 힌디어로까지 번역된 최초의 전도지가 아닐까 싶다. 계속해서 더 많은 언어로 출간할 예정이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의 슬로건은 ‘언어를 몰라도 누구나 5분이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이다. 이 슬로건에 걸맞게 두란노서원 홈페이지(<http://www.duranno.com>)에서 언어별 원어본이 읽어주는 녹음 파일과 한글 발음을 제공하고 있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두란노서점과 두란노몰 홈페이지, 도서사이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평안과 생명(영생)’ 선물하는 전도지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여덟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 손바닥만 하다. 이 작은 전도지 한 권만 있으면 5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접기도까지 인도할 수 있다. 전도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 속 이야기는 성경의 구조인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순으로 이어진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그 뒤를 이어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이야기를 소개한다. 한 장을 넘기면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라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와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사망이 찾아왔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 한다. 이들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평안과 영생을 선물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잘 녹아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당신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전도대상자가 영접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전도하는데 탁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다. 먼저 글과 잘 어울리는 삽화가 페이지마다 들어가 있다. 그 그림 덕분에 글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나 시력이 점차 감퇴하는 노인들에게도 복음을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다. 그림과 글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서 말쑥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이보다 좋은 도구가 없다. 또 전도지 <최고의 행복> 안에 수록된 도표만으로도 전도가 가능하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이 도표만 가지고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평안과 생명(영생)’을 선물하는 전도지다. 여러 불안과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기 때문이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덕분에 누구나 쉽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최고의 행복>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는 전도지를 만들고자 했던 하용조 목사의 소망이 모태가 되었고, 전도를 사명으로 여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하용조 목사가 어느 날 장경문 장로를 불러 전도에 관한 책과 전도지를 제작해달라고 부탁했다. 장경문 장로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전도지 제작에 들어갔다. 온누리 전도학교 담당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이 동역했다. 하용조 목사가 소원한 이후에도 전도지를 제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전도지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였다. 전도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는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타 교회에서까지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 온누리교회 공식 전도지의 발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더 좋은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차례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실제 전도현장에서 활용해 보면서 다듬어 갔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글을 쓰고 삽화를 넣었다. 영접기도문은 이재훈 담임목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최고의 행복’이라는 전도지 제목도 이 목사가 달아주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도지가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벌써 21개의 언어로 번역까지 했다. 국내의 전도 현장은 물론이고 올 여름 아웃리치 갈 때 꼭 챙겨야 할 품목이다.

<최고의 행복> 100% 활용하기

이 귀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100% 활용할 수 있을까?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활용하든지 큰 어려움이 없다. 안성맞춤 전도지이기 때문이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올 아웃리치에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꼭 챙겨야 한다. 국내 아웃리치 노방전도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다과와 함께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전도를 할 수 있다.

해외 아웃리치에서는 다국어로 번역된 <최고의 행복>의 진가가 가장 잘 나타난다.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녹음 파일이나 한글 발음을 활용해서 직접 전도도 할 수 있다. 선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다. 실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사가 한국에 나왔다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르드어(파키스탄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된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보고 크게 감동한 일이 있었다. 그 목사는 “사역지(파키스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전도지”라고 칭찬하면서 “더 많은 선교지에 전도지 <최고의 행복>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은 일상에서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낱마다 가방에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넣고 다니면서 가까운 지인에서부터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경문 장로는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활용해서 환자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라는 권유형 전도를 할 때는 반응하지 않던 분들이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간단한 예화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며 영접기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을 활용한 복음 전도의 능력이지요.”

물론 이 특별한 전도지 <최고의 행복>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도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전도지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화로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전도도 배우고 실습해야 한다.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한 훈련을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10주 과정이다.

훈련문의: 서빙고 010-4572-7373
양재 010-8982-8500
구입문의: 두란노서원 영업부 02-2078-3352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순교하는 교회, 애국하는 교회

야월교회, 염산교회,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6월, 호국보훈의 달이다. 본지에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를 깊이 사랑했던 선조들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 코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전라남도다. 전라남도에는 순교유적지가 참 많다. 대표적인 곳이 영광군 야월교회와 염산교회, 신안군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이다. 우리나라에서 여기만큼 애국하는 교회, 순교하는 교회를 잘 보여주는 곳이 드물다. 그곳에 가면 순국선열들이 피로 보여준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했던 선조들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이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다. 전 세계 순교 역사에서 전교인이 순교자가 된 사례는 전무하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들이 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다. 인민군 점령지역에는 간첩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도적으로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을 핍박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처형하거나 고문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가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 야월교회 기독교인 순교기념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공산군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 무려 5만9천964명이나 된다. 그중에서 전남지역에서 피살된 사람이 4만3천511명으로 피해자의 72.6%를 차지했다. 전라남도 중에서는 영광군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전남 지역 희생자 절반에 가까운 2만1천225명이 피해를 입었다. 야월교회는 성도를 한꺼번에 모두 잃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1950년 6월 22일 공산군 1개 부대가 전남 영광군 야월리에 침투했다. 전라남도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이 영광으로 내려와 공산군을 소탕했는데 살아남은 잔당들이 영광군 옥실리와 야월리 뒷산으로 숨어들었다. 야월교회 성도 정문성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부상당한 공산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부상당한 그 공산군을 붙잡아 총살했는데 영광군에 남아있던 공산군들이 동료가 총살됐다는 사실을 알고 분개했다. 그때부터 공산군들이 야월교회 성도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 사살했다. 살아남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야월교회 조형물 '맞잡은 손', 염산교회 '순교자 합장묘',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장면을 묘사한 동판(왼쪽부터 시계방향).

님을 부인하라고 강요도 했다. 하지만 야월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다. 결국 전교인 65명이 순교하고 말았다. 야월교회 성도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야월교회 기독교인 순교기념관'에 가면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다. 야월교회 기독교인 순교기념관은 전시실과 추모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구한말 사용했던 성경, 찬송가, 기독교 교서 등 한국 교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야월교회 성도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인민군들의 옷과 무기도 진열되어 있다. 그곳에 전시된 영상자료와 전시물들을 보면 당시 야월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학살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추모관에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화합을 상징하는 2층 높이의 조형물이 있다. 이 조형물의 이름은 '맞잡은 손'이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지금 야월교회에는 희생자 가족들과 가해자의 후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손양원 목사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듯이 야월교회 성도들도 원수를 내뿜처럼 사랑하고 있다.

김방호 목사와 염산교회

전남지역 기독교 순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교회가 또 있다. 바로 전남 영광군 염산교회다.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순교사적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만큼 기독교의 순교 정신과 역사를 잘 보여주는 교회이다.

염산교회도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다. 한국전쟁 당시 염산교회 성도 77명이 공산군에

의해 무참하게 사살됐다. 한국전쟁 당시 염산교회에는 독립군 출신 김방호 목사가 시무하고 있었다. 영광군 일대가 공산군의 손에 넘어가고, 교회마저 공산군의 사무실로 이용된 뒤에도 김방호 목사는 영광군에 남아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켰다. 성도들의 피난 권유도 마다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섬겼다.

그해 9월,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UN군이 영광군으로 들어오자 주민들이 큰 환영회를 준비했다. 염산교회 청년부가 그 일을 주도했다. 그런데 미처 후퇴하지 못했던 공산군들이 그 사실을 알고 염산교회 성도들에게 잔인하게 보복했다. 예배당을 불태웠고, 김방호 목사를 포함한 염산교회 성도 77명을 학살했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몽둥이와 죽창으로 때려 죽였다. 성도들의 목에 큰 돌을 매달아 수장시키기도 했다. 염산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고, 자신들을 죽이는 공산군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다.

염산교회에는 당시 공산군들이 사용했던 죽창, 순교자들의 사진, 순교 현장을 묘사한 그림 등 약 200여 점의 자료 및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당시 끔찍했던 학살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염산교회 앞에는 순교자 77인의 합장묘와 비석이 있다. 그 비석에는 요한 복음 12장 23절 말씀이 적혀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3).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도 전라남도 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순교유적지다. 문준경 전도사의 고귀하고 헌신적인 신앙과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문준경 전도사는 1935년부터 1950년까지 신안군 일대의 도서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했다. 교회를 100여 개나 개척했다. 문준경 전도사의 사역 중심지였던 증도에도 교회를 11개나 세웠다. 지금도 증도 주민 90% 이상이 크리스천이다. 전국 복음화를 1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처럼 증도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문준경 전도사의 끝없는 헌신과 사랑 덕분이다.

문준경 전도사의 사역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전도하던 중에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고, 똥물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준경 전도사는 1년에 고무신 아홉 켤레 이상 떨어질만큼 열심히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던 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공산군은 문준경 전도사의 사역지까지 들이닥쳤다. 크리스천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공산군들은 문준경 전도사와 크리스천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문준경 전도사는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북한군의 총탄에 순교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는 문준경 전도사의 출생부터 교육, 전도 일대기, 순교 현장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문준경 전도사가 사용했던 절구, 고무신, 성경책 등 유품도 볼 수 있다. 문준경 전도사가 공산군들의 칼과 창에 찔려 순교하는 장면을 묘사한 동판도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2019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 3,496명 참석
“예수를 갈망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



“우리의 목마름은 참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의 이 메시지가 2019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참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나보다 소외된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품겠다고 결단하는 마리아들의 부르짖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집회가 이어진 3일 내내 3,496명의 마리아들은 나, 내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이웃을 더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기도를 이어갔다. 목이 터져라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 가정과 일터, 청년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부르짖었다. 그 과정에서 마리아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석이 틀림없었다.

2019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은 지난 6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됐다. 거룩한 마리아 3,496명이

참석했다.

첫날부터 열기가 대단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목마른 영혼의 기도’를 주제로 강의하며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의 문을 열었다. 이 목사는 “깊이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의 있기 때문”이라며 “광야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구했던 다윗처럼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오후에는 김양욱 목사(등대교회)가 ‘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목사는 쪽방촌 사역을 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했다. 마리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리아행전 ‘거룩한 목마름’의 열기는 둘째날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첫날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면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당을 찾은 마리아들이 많았다. 행사 시작 한참 전부터 이미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은 만석이었다. 둘째

날에는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가 ‘배부를 것임이요’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 목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의 갈급함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진정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 대표)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강의했다. 조 변호사는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론이 융성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과 교제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했다.

12일과 13일 저녁에는 직장인을 위한 마리아행전이 막 올랐다. 김윤희 대표(FWIA)가 이를 동안 강의했다. 첫날에는 ‘여호와와의 만남 그 이후’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대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

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믿는 자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때’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대표는 “선한 자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이 승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거룩한 목마름을 채우려는 마리아들의 행진은 마지막 날까지 쉬지 않고 이어졌다. 쏟아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들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셋째 날에는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가 ‘영원한 평화의 목마름’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이 목사는 “아름다운 세상과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화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피날레는 마리아들의 금식기도로 장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거룩한 마리아들의 다짐

나는 목마름을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말씀과 예배

말씀으로 거룩한 목마름을 채우겠다는 마리아들이 참 많았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에 빠져 살면서 세상에는 없는 달콤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정현순 성도(강동 온누리교회)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했다. 10년 전 큰아이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다. QT도 빼먹지 않았다. 그 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꿀보다 달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은혜가 무뎌져 갔다. 그 은혜를 잊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심해져갔다.

“말로 설명 못할 달콤한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마름을 더 느끼는 것 같았어요. 큰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 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듣고, 예배의 자리도 쉬지 않고 나오고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말씀으로 목마름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을 해소하고자 이번 마리아행전에 나온 마리아도 있었다. 이유리 성도(푸른누리공동체)는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1~2년 정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 수 없는 목마름이 계속 찾아왔다. 그 목마름의 원인이 단순히 일과 육아에 대한 갈등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

다. 마리아행전에 참가하면서 본질적인 목마름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그것은 예배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었다. 이유리 성도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참 생수 되심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도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내가 참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을 꼭 챙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침이면 아침, 자기 전이면 자기 전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보고 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

거룩한 목마름을 기도로 채우겠다고 다짐한 마리아들도 상당했다. 김예숙 성도(부천 온누리교회)는 가족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면서 거룩한 목마름을 채워가겠다고 했다.

“남편과 아이들 교육문제로 갈등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거든요. 부모의 갈등과 다툼 사이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남편은 저에게 교회에 너무 미처 산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제가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삶으로 자연스레 예수님을 나타냈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자유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품고 기도하며 거룩한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 마리아들도 있었다. 전임분 성도(양재 온누리교회)는 자녀와 탈북민을 위한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다.

“제게는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하는 목마름과 더불어 탈북민사역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탈북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이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결코 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목마름을 기도로 채울 것입니다.”

행함

거룩한 목마름을 삶에서의 변화와 행함으로 채우겠다는 마리아들도 있었다. 인도에서 7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다 한국에 온 지 15년 된 성명희 선교사(푸른초장교회)는 올해 나이가 68세인데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다. 성명희 선교사는 본인의 건강과 가정문제, 선교지의 어려움 등으로 다시 인도로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인도를 향한 거룩한 목마름이 많았다. 그 거룩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그녀는 또 다시 선교를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기쁨이 있으면 이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목마름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여러 사정으로 선교지를 가지 못해서 몹시 안타까웠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선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또 다시 헌신할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배우고 섬김을 다짐한 마리아도 있었다. 홍미영 성도(용산공동체)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관련 일을 하다 뜻하지 않게 베트남 음식점을 운영하게 됐다. 말이 통하지 않는 베트남 직원들과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다. 그러다 이번 마리아행전에 참여했다가 그 해답을 얻었다. 본인에게 일터와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 앞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섬기기로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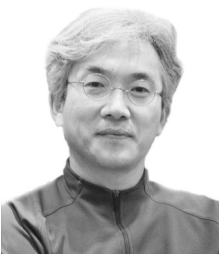
“김윤희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일하면서 직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살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들을 먼저 섬기고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전문가 기고

영화와 함께 읽는 성경

나와 함께 부활하라! 온전히 거듭나라!

안토니오 코레지오가 그린 ‘놀리 메 탄게레(noli me tangere)’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융합심리학연구소장)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인류를 위한 사랑’을 입증하는 대 사건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제자들의 자세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유형이다. 그들은 부활의 첫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전갈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긴가민가했다.

두 번째, 도마의 유형이다. 도마는 부활의 첫새벽에 어디 있었는지 기록이 없다. 그러나 도마는 그날 저녁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동료 제자들에게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 20:25)고 말했다.

세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유형이다. 그들은 길을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일행 중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네 번째, 막달라 마리아 유형이다. 오늘 묵상할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다룬 요한복음 20장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매장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3대 사건을 모두 목격한 유일한 제자이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녀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이내 이를 믿고 받아들인다.

부활의 첫새벽에 만난 마리아와 예수님

오늘 본문과 함께 묵상할 성화는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안토니오 코레지오가 그린 ‘놀리 메 탄게레(noli me tangere)’이다. 놀리 메 탄게레는 ‘나를 만지지 말라’는 뜻의 라틴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으로 무덤에 묻힌 이후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무덤이 있는 동산에 도착했다. 옥합을 깨뜨려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던 그 마리아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동산의 동굴을 파서 만든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있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지만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안다.

“당신이 그분을 어디로 옮겨놓았다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분을 모셔갈게요.”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가 답답했던지 친히 마리아의 이름을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요 20:17).

코레지오가 그린 이 그림은 바로 그 순간을 절묘하게 포착했다. 자신을 부르시는 부활한 예수님의 목소리에 놀란 마리아는 시신을 예수님의 얼굴에서 떼지 못한다. 양팔을 뒤로 한 채 엉거주춤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부활이라는 기쁨 사이에서 어리벙벙한 상태이다. 마치 ‘퀴바디스 도미네’ 즉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하고 묻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

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새로운 에덴동산의 ‘동산지기’

동굴은 생명의 탄생과 부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장소라는 이중적인 상징을 가진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동굴을 파서 만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곳도 동산의 동굴 속 무덤이었고, 부활하신 곳도 바로 그 동굴이었다. 동굴에서 태어나고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인류의 첫새벽을 열었다. 코레지오의 그림 속 원경은 어둠을 헤치고 동이 터오는 여명(黎明)을 잔잔하게 그려낸다. 신학자 존 샌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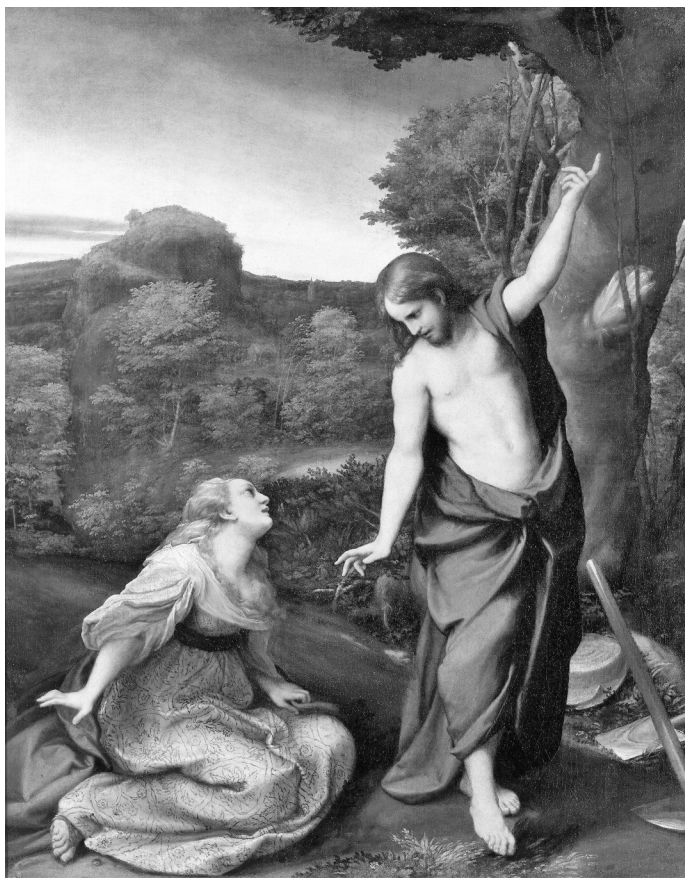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주의 첫날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것은 인류의 삶에서 새 날이 밝아오는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의식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코레지오의 그림에서 예수님의 왼팔 아래쪽에 팬이가 보인다. 다른 화가들도 통상 삽이나 곡괭이, 호미 등 농기구를 예수님과 함께 배치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에 동산지기로 보였음을 표시한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왜 하필 동산지기로 보였을까? 원래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최초의 인간들을 거기에 두셨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들 속에서 ‘동산지기’ 혹은 ‘정원지기’인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창 2:8-9). 그렇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동산의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에덴동산의 창설을 준비하시고 그 동산의 동산지기, 정원지기를 자임하셨다. 그런 맥락에서 막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에 동산지기로 보였지 싶다.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떤 유형일까? 엠마오 도상에서 온종일 동행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닐까? 저녁식사 시간에 겨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주님은 곧장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겨우 알아본다면 예수님은 번번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가장 잘 말한 사람은 융합심리학자 안셀름 그륀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 손을 들어 내 두려움과 좌절, 슬픔과 어둠의 무덤에서 나도 어서 부활하라 이르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나와 함께 부활하라! 온전히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안토니오 코레지오의 ‘놀리 메 탄게레(1518년)’.

부르신다.

“마리아야!” 귀에 익은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아차렸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찬 499),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 ‘꽃’의 한 구절처럼 그렇게 낯선 동산지기는 마리아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되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울면서 한사코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려는 마리아. 예수님은 한 손은 마리아를 만류하고, 다른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신다.

이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만남이 부활한 예수님의 승전을 알리는 선포식이자,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알리는 메신저로 보내는 파송식이다. 그런데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친히 도마의 손을 이끌어 당신의 옆구리에 찔러 넣게까지 하신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도마의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의 차원이었다. 도마와 달리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다. 하지만 예비하신 길을 위해 떠나가야 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고 과거에 집착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새벽이 도래했음을 알리라는 미래적 소명을 부여하시며 “나를 붙

차세대 여름사역 본격 시작!

여름캠프 및 국내외 아웃리치 실시



지난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어드벤처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차세대사역본부 여름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포문은 여름캠프가 연다. 6월 30일(주일) 도곡교육관 예꿈 2부를 시작으로 8월 24일 인천 해본리키즈까지 이어진다. 차세대 국내외 아웃리치 또한 활발하게 실시된다. 올해 차세대 아웃리치에는 39개 팀 595명(국내 16팀, 287명, 해외 23팀, 30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선봉은 차세대 파워스테이션이 맡는다. 6월 27일부터 7월 4

일까지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간다. 대미는 부천 유치부가 장식한다.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캄보디아 온누리교회에서 아웃리치를 한다. 지난 15일에는 2019 어드벤처 전국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모세(Moses) 세 가지 선물’이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6일 서빙고를 시작으로 8일 양재, 15일 수원, 부천, 대전을 순회하며 열린 이번 교사강습회에서는 ‘거룩함을 선물하는 어른’

을 주제로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가 강의했다. 박나영 교사(서빙고 유치2부)는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 차세대들이 만나기를 소망한다”고 했고, 송주영 교사(양재 유년1부)는 “여름성경학교 교재 구성과 내용이 차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서 이번 여름캠프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회복세미나 ‘관계 잇기’ 참가자 모집

6월 25~26일 서빙고 비전홀

회복사역본부에서 개최하는 2019 회복세미나 ‘관계 잇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회복세미나 관계 잇기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관계 회복을 얻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회복사역 홈페이지(<http://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오늘(1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을

할인해 준다. 2019 회복세미나 ‘관계 잇기’에서는 ‘관계의 용량’, ‘보호자와 공격자 훈련’, ‘공격하기보다 사랑하기’, ‘고통과 6가지 감정 나누기’,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애착을 점화하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짐 와일드 목사(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 저자, 크리스 코시 목사(관계의 기술) 저자가 강의한다. 문의: 02-3215-3355 / 권한송 기자 kcs123@onnuri.org

2019 한국 글로벌 선교리더십 포럼

이재훈 담임목사, 조나단 봉크 박사 등 100여 명 참석

온누리교회와 GMLF가 공동주최한 2019 한국 글로벌 선교리더십 포럼(Korea Global Mission Leadership Forum)이 ‘선교사, 정신건강, 그리고 교회 및 선교단체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책무’를 주제로 6월 10일부터 5일 동안 강원도 속초 캔싱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조나단 봉크 박사(GMLF), 이시영 장로(시니어선교한국) 등 국내외 선교단체 리더십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 한국 글로벌 선교리더십 포럼에서는 선교사들의 정신건강, 교회 및 선교단체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발표 및 응답이 이어졌다. 이 자

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죄, 습관, 가정, 문화 등 다양한 것들이 섞여있다”면서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동행하는 삶이 회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벤티리 신부(예수원)는 “한 부분만 파송해서는 공동체를 이뤄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최소 두 가정 이상을 팀으로 파송해서 사역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신현승 장로(2000선교)는 “선교사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선교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학청년부, 통일꿈땅멘토프로젝트 위촉

탈북 청소년들에게 일대일 멘토링 학습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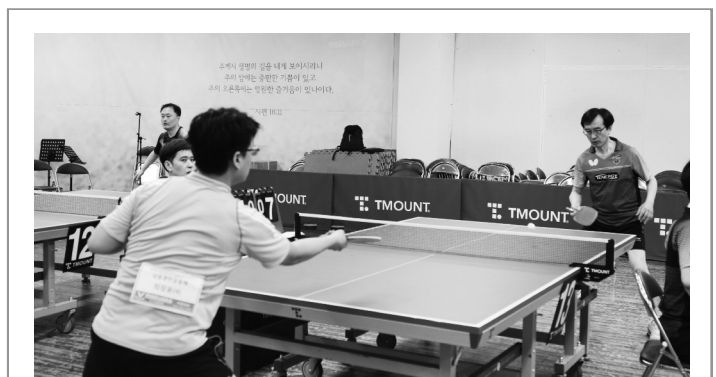
지난 8일(토) 한터(사회선교본부 한누리 통합팀)가 실시하고 있는 통일꿈땅멘토프로젝트에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멘토로 위촉됐다.

통일꿈땅멘토프로젝트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멘토링 학습 활동 및 창의 체험 활동, 외부 체험 활동 등을 진

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어제(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일대일 멘토링이 시작됐다. 12월까지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5880	임채환	요셉	1135909	손향순	인천 소망	1135936	권태훈	동대문중앙	1135966	노수진	부천 Dream
1135881	이강미	SNS	1135910	김예나	S브릿지	1135937	이은순	관악금천	1135967	이다혜	부천 Dream
1135882	김선우	SNS	1135911	홍효순	S브릿지	1135938	김수연	서초B	1135968	박은지	SNS
1135883	김유연	SNS	1135912	서승원	Gil	1135939	김강민	분당B	1135970	정영성	양천
1135884	김사라	SNS	1135913	김희서	SNS	1135940	박지은	분당B	1135971	김동형	용산
1135885	손정우	SNS	1135914	가민연	대전중구야배	1135941	권선희	서초B	1135972	이경민	용산
1135886	유시인	SNS	1135915	나지훈	대전중구야배	1135942	박선희	도곡	1135973	박예림	이수
1135887	노지윤	SNS	1135916	김성은	특별한초대	1135943	김현자	부천 화평	1135974	김재현	양지 동누리
1135888	김효민	SNS	1135917	김은지	여호수아	1135944	최세진	부천 믿음	1135975	안정현	SNS
1135889	신수빈	SNS	1135918	김찬미	여호수아	1135945	정희선	서초B	1135976	김영빈	SNS
1135890	임선희	남양주A	1135919	류승환	여호수아	1135946	심경열	가정사역	1135977	최보미	SNS
1135891	허장현	관악금천	1135920	박파란	여호수아	1135947	이내철	송파A	1135978	최연희	SNS
1135892	김소옥	부천 회락	1135921	윤형주	여호수아	1135948	최정숙	양재	1135979	최새미	SNS
1135893	정준선	갈렙	1135922	최송희	여호수아	1135949	최현숙	양천	1135980	최유선	SNS
1135894	이영숙	강동 믿음	1135923	정혜선	인천 믿음	1135950	오성순	용산	1135981	김지수	SNS
1135895	박영숙	남양주 행복하나	1135924	김영신	여호수아	1135951	이상건	인천Web	1135982	박현주	SNS
1135896	박서현	갈렙	1135925	유재황	여호수아	1135952	함형진	인천Web	1135983	고윤주	SNS
1135897	강설경	남양주 행복하나	1135926	한이슬	여호수아	1135953	원성혜	인천Web	1135984	손지민	SNS
1135898	김한솔	인천Web	1135927	문아경	여호수아	1135954	김포	김포	1135985	이용우	SNS
1135899	신상민	인천 소망	1135928	진주원	여호수아	1135955	이상옥	부천 화평	1135986	박하은	SNS
1135903	안정환	경기A	1135929	남현호	허브	1135960	진희경	강남B	1135987	최정주	SNS
1135904	서지우	이촌	1135930	송호재	허브	1135961	김주현	강남B	1135988	김옥실	인천 소망
1135905	송정숙	성북	1135931	이두형	수원 북누리	1135962	지혜선	부천 Dream	1135994	정다정	부천 Dream
1135906	박기정	남양주A	1135932	박영순	강남A	1135963	김노사	부천 소망			
1135907	이창남	인천 소망	1135934	백은지	마포	1135964	김지봉	대전 남누리			
1135908	이상수	강서	1135935	안현순	인천 소망	1135965	김현국	중종로			



우리는 스포츠 선교사입니다 ... 지난 6일(목)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제7회 열방탁구축제’ 참가자들이 구슬땀 흘리며 탁구를 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비전홀에서 예배드리고, 비전홀과 기독교문화전시관에서 탁구 단체전과 개인전을 치렀다.

CGNTV 드라마 <고고송>

유튜브 조회 수 100만 돌파

CGNTV가 제작한 드라마 <고고송>이 유튜브 조회 수 100만을 돌파했다. 드라마 <고고송>은 배우 윤은혜, 지일주 주연의 본격러브액션드라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CGNTV는 올해 초 방영한 2부작 드라마 <고고송>을 또 보고 싶고, 다

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국내외 시청자들의 요청에 따라 3월 5일 유튜브에 업로드 했다. 영어자막도 추가했다. 그리고 약 3개월 만인 지난 6월 7일 조회 수 100만 뷰를 돌파했다. 드라마 <고고송>은 대만의 기독교 채널 GOOD TV에서도 중국어 더빙 영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온누리 전도학교 수료 간증



/ 김종순 성도(송파A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골 4:3).

전도에 대한 사모함으로 시작한 온누리 전도학교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안광국 목사의 짧지만 영성 깊은 말씀이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또 장경문 장로님의 수많은 현장전도의 내공이 묻어나는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친절하고 편안한 조장님의 인도와 배려가 3조를 더욱 빛나게 했다.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배우는 5분 전도의 하이라이트는 현장실습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에서 연습할 때는 쉬었는데 현장에서는 달랐다. 탑골공원으로 현장실습을 나갔는데 점심시간이 겹치기도 했고 다른 팀들도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준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하였다.

한 젊은 남자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자신은 동성애자라고 고백하며 마음의 갈등을 털어 놓았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다. 그 주간에는 그 형제를 위한 기도가 계속 흘러 나왔다. 사회에서

씨 뿌리는 농부, 추수하는 일꾼

소외되고 소수자인 그들을 비난만 했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회개했다. 또한 뚝섬에서 전도할 때는 데이트하는 젊은이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이 많았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에 무관심했고, 복음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심지어 기독교인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좋고, 세상에서는 이기적이며 선한 영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몇 번의 실습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온누리 전도학교를 마친 후에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을 내려놓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며 씨 뿌리는 농부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시간을 사용하며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열린다 성경 수료 간증



/ 신정우 성도(분당B공동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

나는 구약은 물론 신약을 읽을 때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만나면 나의 부족함을 탓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성경을 덮어두곤 했다.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는 더 생각이 많았다. 분명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가 가능하도록 비유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셨을 텐데 나는 왜 이해를 못하는지, 도대체 왜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았다.

‘열린다 성경_성서 식물/동물’을 수강하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뜻밖의 열쇠를 만난 기분이었다. 또 덮어두었던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비유를 찾아보며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아짐을 경험했다. 특히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큰 충격이었다. 내가 알고 있던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백향목 건축과 금방패, 전국 곳곳에서 말을 키우는 행위로 본인을 드러내고 싶어했던 허영심 가득한 왕이었다. 그 허영심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회소하고, 스스로 승리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이어졌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과 비교하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게

되었다.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는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 겹세마네는 올리브 열매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기름을 짜내는 틀이다. 예수님은 겹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자아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피를 쏟듯이 기도하셨다. 십자가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공감만 했던 내가 비로소 예수님의 겹세마네 기도를 이해하게 되었다.

겨자씨에 대한 성경의 비유도 오랫동안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제 중 하나였다. 겨자나무는 갈릴리를 대표하는 잡초인데 키가 1.8cm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새들이 동지를 틀수 있는 거목이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나무를 예수님의 정원에 옮겨 심어 거목으로 길러내신다. 갈릴리의 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나는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의 정원인 하늘나라에 심겨져 거목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고 이해했다. 아직 더 많이 배우고 알아야겠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길을 밝혀 주신 류모세 선교사님께 감사드린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린다.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온 편지



/ 윤석일 집사(서초A공동체)

사랑하는 아들 여준에게

아버지학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여준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쓴다. 건강한 청년이 된 너를 보며 아빠는 참 듣직하고 자랑스럽다. 여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들이 많이 생각나는구나. 행복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아빠는 모든 것에 함께해 준 여준이 너와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있단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며 일하는 여준이 너에게 참 고맙구나. 생각이 깊고 마음이 넓고, 무엇보다 신앙심이 있는 네가 자랑스럽다. 항상 아빠를 믿고 따라와 주는 여준이가 참 고맙다.

아빠가 일에 열심이다 보니 여준이와 가족들을 조금 더 돌보지 못한 것에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 아빠는 안정된 직장을 가졌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지. 사업에서 빨리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일 중심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빠가 참 무심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다.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과 후회로 남

는다.

아빠한테 섭섭한 것이 많지? 여준이 너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많이 있구나. 여준아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여준이 너와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같이 운동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아빠의 모습이 너무 후회가 된다. 그럼에도 여준이는 주어진 환경에 잘 따르고, 언제나 아빠와 함께해주며 기다려주었지. 아빠에게 힘이 되어 주어 정말 고맙다. 주장이 강하고 성격 급한 아빠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준 여준이에게 정말 감사해. 아빠에게 여준이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다. 아빠는 요즘 여준이와 가족을 위해 매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단다.

이제부터 아빠가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기로 약속할게. 더 좋은 아버지요, 더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아빠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겸손하며 낮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해. 여준이와 가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평생 하도록 할게. 여준아 고맙다. 여준아 사랑한다. 여준아 축복한다.

프리덤스쿨 수료 간증



/ 이준웅 집사(양재 온누리교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같이 학업을 하던 지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서 너무 좋았다고 프리덤스쿨을 추천했다. 나 역시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마침 상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 아내와 함께 신청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껏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고민과 방황,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의 모습이 애처롭고 답답할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하고 나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나의 신념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없는 방황의 연속이었다.

나는 프리덤스쿨을 수강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환경은 전과 다를 것 없이 여전하다.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있다. 항상 답답했던 상황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이 든다.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부모님을 용서한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셨고, 평생 한 마디 대화도 해 본 적 없고, 폭력과 저주의 말만 하셨던 아버지를 용서한다. 어린 우리 4남매에게 소홀하셨던 어머니를 용서한다. 그 고통 속에 나를 속박하고, 패사에 부정적이고, 오직 나만 믿고 살면서, 삶의 고통으로 허우적거렸던 나 자신을 용서한다. 이제 믿음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기도한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니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겸손한 영혼의 기도

겸손한 영혼이 누리는 축복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 떼 아이가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 떼 아이와 같습니다”(2절).

생각할수록 깊은 영감을 느끼게 하는 고백입니다. ‘젖 떼 아이가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은 아버지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머니들은 젖을 떼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떼고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스스로 소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바로 이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다가 젖을 땔 때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세상에서 처음으로 겪는 고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으로 인해 세상에 집착하고, 옛사람에 집착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끊어지는 것을 아이가 젖을 떼는 고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서 이것을 가져가십니까? 왜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마땅히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집착하고 매달

렸던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떼도록 하십니다. 모두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이 스스로는 절대 젖을 떼지 못합니다. 엄마가 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옛사람으로부터 절대 분리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절대로 못 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떼시는 겁니다. 처음 젖을 땔 때는 아이가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머니가 만들어 준 다른 양식,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젖을 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양식을 공급하셔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겸손해야 찾아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젖 떼 아이가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젖을 떼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의존하던 집착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을 집착하고 주장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동행하시는 믿음의 평안함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도 여전히 어머니와 동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

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영혼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젖을 떼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으며 살아가는 겸손한 영혼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3절). 겸손한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충만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다윗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영적 축복입니다.

우리 평생 믿음의 숙제는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교만을 깎고 또 깎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눈을 겸손한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스스로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다윗이 양치는 일에 충성했을 때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삶이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영혼의 기도를 날마다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꼭 한번 봐야 할 작품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박수가 선교사의 눈물 나게 감동적인 삶을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박수가 선교사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가 이봄씨어터(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0길 9 대원빌딩 지하 2층)에

서 상영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가 개봉 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은 선교정신이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배우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필리핀에서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렸던故 박수가 선교사가 생전에 한 말이다. 박수가 선교사는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 2012년과 2016년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면서 알려졌는데 박수가 선교사가 삶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계를 뛰어넘어 온 국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박수가 선교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의료 선교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오지를 찾아다니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료선교에 헌신했다. 박수가 선교사는 30여 년 동안이나 의료선교사로 헌신했다. 교통수단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료시설도 갖추어지지 않는 필

리핀 오지에서 버스를 직접 운전해서 환자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외과의사로서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부, 명예, 평안한 삶을 거부했다. 왜 박수가 선교사는 그토록 어렵고 험난한 인생을 선택했을까?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사신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닮고 싶었을 뿐이었다.

박수가 선교사의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아픔보다 타인의 아픔을 더 걱정했기 때문이다. 박수가 선교사는 1992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2004년에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2009년부터는 간경화와 당뇨를 앓았다. 2016년에는 위암이 재발하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무려 40여 회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그의 몸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갔다. 그 와중에도 박수가 선교사는 병에 걸린 것을 감사하고 행복

해했다.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파 봐야 아픈 이의 고통을 안다.”

박수가 선교사는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걱정했다. 그래서 온갖 질병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떠나지 못했다. 아니 떠나지 않았다. 그의 형언할 수 없이 큰 헌신과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 필리핀에 세운 선교병원, 교회, 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에서는 박수가 선교사가 세우고 섬긴 기관들을 소개하고 그의 사명을 이어받은 현지 사역자들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KBS 인간극장에서 박수가 선교사를 소개했던 임준현 감독이 연출했다. 내레이션은 영화 감독 추상미가 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상영장소: 이봄씨어터(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0길 9 대원빌딩 지하 2층)
티켓 가격: 성인 1만 원, 청소년 5천 원
문의: 070-8233-4321

14 온누리신문

2019년 6월 16일(주일) | 제1250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금보 하나로 쉽

아랍어 주일 14:00 분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광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플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덜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부림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차: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잔여수량 7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네팔 포카라 재능기부 아웃리치팀원

모집

일시: 8월 13일~19일(+1)

장소: 네팔 포카라

비용: 항공비 별도, 개인화비 30만원

분야: 이마용, 한국음식, 탁구, 악기(기타),

한국어, MK교육, 진로상담, 교사강습 등

문의: 이생명 선교사(010-2902-2763)

두란노서원 IT사업부 채용

모집: 콘텐츠팀, 시스템팀 각 1명

업무: 콘텐츠팀(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유

지보수), 시스템팀(웹 유지관리)

근무: 정규직(수습3개월)

자격: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 앱개발 가능

자 우대, 웹 개발/퍼블 경험자 우대,

장애인, 보훈대상자 우대

CMN BEE팀 아웃리치 모집

일시: 7월 23일~28일

장소: 인도네시아 톰복

분야: 비의료인, 치과, 약사, 피부과, 산부인

과, 간호사, 미용

비용: 130만원

문의: 한정식 팀장(010-9083-4196)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광: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CGNTV

나침반 바이블

매주 수, 목요일 오전 8시 방송

다양한 목회자가 전하는 깊이 있는 성경 강의.
새롭게 시작하는 열왕기상,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나침반과 같은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수요일 강의

열왕기상 : 다윗의 등불과 하나님의 나라
김진수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요일 강의

빌립보서 :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유상섭 목사 (창신교회)

